

제 2장 성씨

I 개 관

제 1절 성씨의 의의

혈연(血緣)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우리 민족은 어느 누구나 부계(父系)를 중심으로 한 각기의 성씨를 갖고 있으며, 각 성씨 별로 씨족(氏族)의 역사를 갖고 서로 융화하며 협동·발전하여 왔다. 특히 조상숭배사상과 애족사상이 강한 우리들은 성씨를 통해 선조들의 유현(幽玄)한 여운(餘韻)을 느끼고, 면면히 내려오는 가통(家統)의 맥락을 더듬으며 조상의 얼과 체취를 느끼는 동시에 가문에 대한 강한 긍지를 느끼게 한다. 또한 성씨의 성장과정은 문명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사회적·심리적·정치적 역할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제 2절 성씨의 유래

성씨의 발생연원은 정확한 기록이 없어 상세히 알 수는 없으나, 대략 중국 성씨 제도의 영향을 받아 고조선시대에 왕족에서부터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대 씨족사회로 접어들면서 그 집단을 통솔하는 지배자가 나타나는데, 통솔에 필요한 정치적 기능을 부여함에 있어서 다른 씨족과 구별하기 위한 호칭이 성으로 나타나고, 점차적으로 지방 세력이 중앙귀족화 되면서 다수의 부족을 통솔하기 위한 칭호이며, 정치적 신분을 표시하는 중요한 의미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은 초기에 왕실이나 귀족에서만 국한되어 사용하다가, 국가에 공이 큰 공신들이나 귀화인들에게 세거(世居)지역이나 강(江)·산(山)의 명칭을 따라 사성(賜姓)을 하면서 확대되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의 성씨 사용은 고려 문종(1047) 이후에서부터 하겠다. 그것은 문종 9년(1055)에 성을 붙이지 아니한 사람은 과거에 급제할 자격을 주지 아니하는 법령을 내린 것을 보면, 문종시대까지도 성을 쓰지 아니한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종 9년의 법령은 실로 우리나라 성의 한 시기를 긋는 것으로서, 이때부터 성이 보편화되어 일반 민중이 다 성을 쓰게 되었다. 우리나라 성씨 중엔 문종 이후의 사람을 시조로 하는 씨족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문종 이후에 성을 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고려 중기인 문종 이후 성이 보편화 되었으나, 상민과 노비를 포함한 모두가

성을 갖게 된 것은 조선말 개혁정치가 시행되면서 부터이다.

제 3절 성씨의 특성 과정

우리나라의 성은 모두 한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중국 문화를 수입한 뒤에 사용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등 우리나라 옛 사적에 의하면, 고구려 시조 주몽(朱蒙)이 고구려를 건국하여 국호를 ‘고구려’라 하였기 때문에 고씨(高氏)라 하고, 그 신하 재사(再思)에게 극씨(克氏), 무골(武骨)에게 중실씨(中室氏), 묵거(默居)에게 소실씨(小室氏)의 성을 사성하였다 한다.

‘백제’는 시조 온조(溫祚)가 부여계통에서 나왔다 하여 부여씨(夫餘氏)로 하였으며, ‘신라’ 시조 혁거세는 기원전 57년경 기슭 나정(蘿井)옆에 있는 숲속에서 표주박 같은 커다란 알에서 탄생하였다고 하여 표주박 박씨(朴氏)라 하였으며 아울러 석씨(昔氏), 김씨(金氏) 등 삼성(三姓)의 전설이 있고, 제3대 유리(24~26)대에 경주 육부인(6촌)에게 이(李)·최(崔)·손(孫)·정(鄭)·배(裵)·설(薛) 등 이른바 신라 6성이라는 것을 사성하였다 하며, ‘가야국’ 시조인 수로(首露)도 42년(신라 유리왕 19년) 금관국 북쪽 구지봉(龜旨峰)에 떨어진 6개의 황금알에서 나왔다 하여 김씨(金氏)라 하였다.

이와 같이 삼국은 고대 부족국가 시대부터 성을 쓴 것처럼 기록되었으나, 이것은 모두 중국 문화를 수입한 뒤에 지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창성(創姓)과 사성(賜姓)도 대중화 되지 못하고 극소수의 특권층인 귀족계급에만 한정된 것이었다.

요컨대 우리나라가 중국식 한자 성을 쓰기 시작한 것은 중국문화를 수입한 이후의 일로서, 고구려는 그 사용 연대를 대개 장수왕대(413~491)부터 중국에 보내는 국서에 고씨 성을 썼으며, 백제는 근초고왕(346~374) 때부터 여씨라 하였다가 부왕 때부터 부여씨라 하였으며, 신라는 진흥왕시대(540~576)부터 김씨 성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민중 전체가 성을 쓴 것은 아니었다. 먼저 왕실에서 사용하고 다음에 귀족 관료층에서 사용하였는데, 『삼국사기』와 『당서』 이전의 중국 정사에 기록되어 있는 삼국의 성을 보면 왕실의 성을 쓴 사람이 가장 많이 나타나 있다.

고구려는 고씨, 백제는 여씨, 신라는 김씨의 성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고, 그 밖에 고구려는 을(乙)·예(禮)·송(松)·목(穆)·예(芮)·연(淵)·을지(乙支) 등 10여종, 백제는 사(沙)·연(燕)·목(木)·협(協)·해(解)·진(眞)·국(國)·묘(苗)의 8족과 왕(王)·장(張)·사마(司馬)·흑치(黑齒) 등 10여종, 신라는 앞서의 3성과 6부의 6성 그리고 장(張)·요(姚) 등 10여종에 불과하다.

신라의 경우 진흥왕 순수비(561년 건립)에 성을 쓴 사람이 하나도 없고 또 『삼국사기』에도

성을 쓴 사람보다 쓰지 아니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보면 귀족관료들도 다 성을 쓴 것은 아니었다. 주로 중국에 왕래한 사람, 예를 들면 김인문(金仁問), 김정종(金貞宗), 박우(朴祐), 등과 같이 사신으로 갔다 온 사람, 최치원(崔致遠), 최이정(崔利貞), 김숙정(金叔貞) 등과 같이 유학하였거나, 장보고(張保臯)와 같이 당나라에 갔다가 돌아와 청해진 대사가 되어 동양에서 제해권을 잡고 당·일본에 무역을 한 사람들이 성을 사용하였으며, 일반 민중은 신라 말기까지 성을 쓰지 않았다.

신라 말기 후삼국의 대혼란을 당하여 평민으로서 각지에서 일어난 성주의 원종(元宗)·애노(哀奴), 죽주(竹州-竹山)의 기훤(箕萱), 복원(현原州)의 양길(梁吉-良吉), 태봉왕 궁예(弓裔)의 부장인 홍언(弘彦)·명귀(明貴), 후백제왕 견훤(甄萱)의 부장인 관흔(官昕)·상귀(相貴)·상달(尙達)·능환(能喚), 고려 태조 왕건(王建)의 부장인 홍술(弘述)·백옥(白玉)·삼능산(三能山)·복사귀(卜沙貴) 등은 모두 성을 쓰지 아니하였다.

이 중에 고려 왕건은, 고려 건국 개국공신인 홍술에게 홍씨(洪氏)를, 백옥에게 배씨(裴氏)를, 삼능산에게 신씨(申氏)를, 복사귀에게는 복씨(卜氏)를 사성하여, 각각 홍유(洪儒)·배현경(裴玄慶)·신승겸(申崇謙)·복지겸(卜智謙)으로 개명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각각 부계홍씨(缶溪洪氏) 경주배씨(慶州裴氏) 평산신씨(平山申氏) 면천복씨(沔川卜氏) 등의 시조가 되는데, 아마 고려 건국 후 귀하게 된 뒤에 일이라 하겠다.

또 고려 태조는 사성한 예가 많이 있다. 지금의 강릉 지방을 관장하고 있던 명주(溟洲) 장군 순식(順式)이 귀순하자 태조는 왕씨(王氏)의 성을 주고, 신라인 김행(金幸)이 태조를 보필하여 권능이 많은 까닭에 권씨(權氏)의 성을 주어 안동 권씨(安東權氏)의 시조가 되었다.

흥미있는 사실은 충주 어씨(魚氏) 시조 어중익(魚重翼)은 원래 지씨(池氏)였는데, 태어날 때부터 체모가 기이하고 겨드랑 밑에 비늘 셋이 있어 고려 태조가 친히 불러, 보고나서 어씨로 사성했다 한다.

『동국여지승람』의 목천현(木川懸) 성씨조에 보면, 태조가 고려를 개국한 뒤 목천 사람들이 자주 반란을 일으키므로 태조는 이를 미워하여 우(牛)·마(馬)·상(象)·돈(豚)·장(獐)과 같은 짐승의 뜻을 가진 글자로 성을 주었는데, 뒤에 우는 우(于), 상은 상(尙), 돈은 돈(頓), 장은 장(張)으로 고쳤다고 기록돼 있다.

제 4절 성씨의 사회적 의미

원시사회에는 토테미즘(Totemism)으로 인한 특정 동물을 씨족의 선조로 모시는 종교적인 면이 있었으나, 문명이 발달하고 문자가 보급되면서 토테미즘이 점차 사라지고 특정 성씨를

씨족의 상징으로 확정하게 되었다.

중세사회(中世社會)에 이르기까지 성씨는 왕족이나 귀족과 같은 지배계급에서만 사용함으로써 정치적·사회적 신분계급의 상징이었으나, 오늘날에는 평등한 조건에서 누구나 갖게 됨으로써 인격존중의 사회적 진보가 달성되고 사회적 소속감을 갖게 되었다.

또한 성씨는 씨족간의 일체감 속에 자기를 귀속·확인시켜 안정감을 갖게 하고 나아가서 민족유대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며, 사회적 지위의식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예컨대 특정 성씨의 사회적 성공이나 출세는 그 성씨 모두의 사회적 신분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의 각성과 사명의식을 고취시켜 준다.

이렇듯 성씨는 신성불가침한 자아성취(自我成就)의 도구로 여겨지며, 성씨를 중심으로 자신의 업적이나 명예가 결국은 성씨에 귀착되고 성씨를 통해 계승된다는 사실을 볼 때, 성씨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파벌(派閥)의 근거가 되고 동류의식(同類意識)이 강화됨으로써 폐쇄적인 족벌주의(族閥主義)가 나타나며, 개인을 한 집단에 매어놓고 희생시켜 발전과 개혁의 장애물이 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제 5절 성씨의 성장 과정

성씨의 종류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의 흥망성쇠를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265성이 기록되어 있고, 조선 영조 때 도곡(陶谷) 이의현(李宜顯)이 지은 『도곡총설(陶谷叢說)』에는 289성이, 조선 정조 때 아정(雅亭) 이덕무(李德懋)가 쓴 『양엽기(盎葉記)』에는 486성이, 영조 46년(1770)에 편찬되어 정조6년(1782)에 증보를 시작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조선 초에 무려 496성이었던 것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에는 289성으로 줄어들었으며 다시 496성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외에도 성씨에 관한 문헌으로는 『동국여지승람』과 양성지(梁誠之)의 『해동성씨록(海東姓氏錄)』, 조중운의 『씨족원류(氏族原流)』, 정시술(丁時述)의 『제성보(諸姓譜)』 등이 있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1930년 총독부 국세조사에는 250성으로 조사됐고, 1934년 중추원에서 펴낸 『조선의 성명 씨족에 관한 연구조사』에는 326성으로 나타났다. 1960년 국세조사에서는 미확인 11성을 포함하여 258성이었으며, 1975년 국세조사에서는 249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1985년 경제기획원에서는 본관별(本貫別) 분류를 처음으로 시도하여 다각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하였다. 이 조사에 의하면 275성과 3,349개의 본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0년에 국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씨는 한국사회보다 훨씬 앞서 국제화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성씨 중 외국인이 귀화하면서 새로 만든 귀화인 성이 442개로 조사되어 토착 성 285개의 1.5배에 달하여 2000년 현재 한국의 성씨는 727개와 4,179개의 본관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시대별 또는 자료별 차이가 큰 것은 대개 실제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옛 문헌에 산재해 있는 것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이며, 가구주(家口主)와 호적별(戶籍別)의 조사 차이로 나타났다.

그런데 1985년에 이어 15년만에 실시된 ‘2000년 인구 주택조사’ 결과 귀화인 성의 수가 토착 성보다 많은 것은, 귀화성의 96.2%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호적에 등록한 것이고, 귀화인 중 여자가 87.7%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귀화 성 중에서도 수가 가장 많은 것은 필리핀계로, 골라낙콘치타·퀵랑로즈 등 145개에 달하고, 2위는 고전(古田)·길강(吉岡)·길성(吉省) 등의 일본계로 139개(한글 등록 112개, 한자 등록 27개)였다. 노(盧)·무(武)·악(岳)·왕(汪)·장(藏)·총(叢) 등 중국계 성씨는 83개(한자 71개, 한글 12개)였다. 또 베트남계(누그엔티수안 등), 태국계(남캉강마 등)도 10~30개씩 호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통계청에서는 토착 성 중에서 지난 85년 조사 때 없던 경(京)·빙(氷)·삼(杉)·소(肖)·엽(葉)·예(乂)·우(宇)·원(苑)·즙(汁)·증(增)씨의 11개 성씨가 새로 확인되었음이 밝혀졌다. 또 2000년 조사에서 나타난 우리나라의 10대 성씨는 김씨(金氏)가 인구의 21.6%, 이씨(李氏)가 14.8%, 박씨(朴氏)가 8.5%, 최씨(崔氏)가 4.7%, 정씨(鄭氏)가 4.4%, 강씨(姜氏)가 2.3%, 조씨(趙氏)가 2.1%, 윤씨(尹氏)가 2.1%, 장씨(張氏)가 2.0%, 임씨(林氏)가 1.7%의 순으로 전체 인구의 64.1%를 차지하여 대성(大姓) 구조가 여전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성지방의 성씨 분포도 전국적인 경향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허씨가 집성촌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점이 이 지역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제 6절 본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씨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같은 성씨라 하더라도 계통이 달라, 그 근본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웠으므로 동족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본관(本貫)이다.

본관이란 시조가 난 땅을 본관향(本貫鄉) 또는 관(貫)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관은 돈(화폐)을 말하는 것으로 돈을 한 줄에 꿰어 묶어 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이, 친족이란 서로 관련성

을 갖고 있다는 뜻이며, 여기에 더 나아가 본적(本籍)이란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시조나 증시조의 출신지 혹은 정착세거지(定着世居地)를 근거로 호칭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봉군(封君:고려 때 중 1품, 조선 때 2품 이상의 공로자에게 주는 직위) 칭호에 따라 정하는 경우, 그리고 성씨와 같이 임금이 공신이나 귀화인에게 특별히 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관(賜寬)이라고 한다.

고려 개국공신 신숭겸(申崇謙)은 곡성 사람이었지만, 고려 태조와 함께 평산(平山)으로 놀러가 그곳이 좋았으므로 평산을 본관으로 하사받았으며, 하동 쌍계사 비문에 진감선사(眞鑑禪師)의 본관이 황룡사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선사가 황룡사 출신이라는 것을 말하는 듯하다. 따라서 성씨만이 같다고 해서 전부 같은 혈족이 아니며, 본관까지 같아야 같은 혈족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성씨와 본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동족동본(同族同本) 동성인데, 근친혼(近親婚)의 불합리성과 윤리적 가치관 때문에 혼인(婚姻)을 절대 금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많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자 점차 해소시킬 방침이다.

둘째, 이족동본(異族同本)의 동성관계인데, 이는 성과 본이 같지만, 그 근원은 전혀 달라 사실상 혈통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남양홍씨(南陽洪氏)는 당홍(唐紅:당나라로부터 온 洪殷悅을 시조로 함)으로 구분되어, 전혀 공통점이 없이 계통을 달리하고 있다.

셋째, 동족이본(同族異本) 동성인데, 이는 시조도 다르고 본도 다른 경우이다. 예를 들면 강릉 김씨(江陵金氏)와 광주 김씨(光州金氏)는 시조와 본이 다르지만 같은 김알지 계통이며, 고부 최씨(古阜崔氏)와 경주 최씨(慶州崔氏)도 마찬가지로 시조와 본을 달리하지만 같은 최치원(崔致遠) 계통이다.

넷째, 이족이본(異族異本)의 동성관계인데, 이는 대성(大姓)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한 예로 김해 김씨(金海金氏)와 경주 김씨(慶州金氏) 등과 같이 같은 성을 쓰면서도 조상이 달라 아무런 계통관계가 없는 것이다.

다섯째, 동족의 동본이성(同本異姓)인데, 이는 조상과 본을 같이 하면서도 성씨만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예로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金海許氏)의 경우인데, 같은 김수로왕의 후손으로서 성만 달리함으로 혼인이 금지되어 있다.

여섯째, 이족의 동본이성인데 이런 경우는 허다하다. 예를 들어 경주 이씨(李氏)와 경주 김씨(金氏), 경주 손씨(孫氏), 그리고 안동 강씨(安東強氏) 권씨(權氏), 안동 김씨(金氏) 등의 경우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성씨에 나타난 본관의 수를 살펴보면, 『동국만성보(東國萬姓譜)』에는 김씨가 120본, 이씨가 116본, 박씨가 51본, 최씨가 43본, 정씨가 35본 등으로 나타나있다.

1930년 국제조사의 기록을 보면 김씨 285, 이씨 281, 박씨 128, 최씨 127, 정씨 122, 강씨 33, 조씨 56, 윤씨 44, 장씨 63, 임씨 60으로 나타났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같은 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동족부락이 있었는데, 이들은 문벌(門閥)을 소중히 여기고 자치적으로 상호 협동하여 집안일을 해결해 나가는 특이한 사회조직의 한 형태를 이룬다.

수많은 본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파(分派)를 지양하고 한 민족의 핏줄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동족동본의식으로 오천년 역사를 이끌어 온 원동력이 되었다.

II 고성의 성씨

고성에는 토성 사족의 거주가 적은 반면 타읍 출신 사족의 왕래가 비교적 많았다. 이는 조선 초기까지 토성으로 자리하던 성씨들이 이후로는 고성에서 크게 세를 형성하지 못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성에서의 타성들이 크게 역할을 한 계기는 임진왜란 때의 의병활동이었다. 이들은 이를 발판으로 고성에서 주도적 지위를 가질 수 있었다.

다음은 조선 초기까지 고성에 거주했던 토성들과 조선 중기 이후 부상했던 성씨들이다.

제 1절 고려~조선초 고성의 토성(土姓)

고성의 토성으로 채(蔡)·이(李)·박(朴)·김(金)·남(南) 등이 있다. 이들 토성은 『세종실록지리지』(1454)에서 소개된 이후, 조선 후기까지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여지도서』(1765경), 『철성지』(1930), 『교남지』(1937) 등 각종 지리지에 인용되었다. 그러나 이들 토성들은 고성 내에서는 조선 중기 이후 대체로 그 세를 크게 떨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 채씨(蔡氏)

고성의 토성 중에 하나인 고성 채씨에 관한 기록은 『세종실록지리지』에 간략히 언급한 이래로, 관찬 지리지마다 같은 내용이 실려 전한다. 고성 채씨 중 타지에 살았던 인물들이 생원·진사시에 입격한 예는 몇 건 찾아 볼 수 있지만, 고성에 거주한 고성 채씨에 관련된 정보는 채승박(蔡承朴, 1546-?), 채사박(蔡嗣朴, 1560-?) 형제의 무과 합격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들 형제는 1584년과 1588년에 각각 무과에 합격하였다. 부친은 채언걸(蔡彦傑)인데,

관직은 호장(戶長)으로 표시되어 있다. 채계박(蔡繼朴)이라는 형제도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로 고성에 거주한 고성 채씨에 관련된 기록은 찾기 힘들다.

2) 이씨(李氏)

고성 이씨는 고려 후기 신진사족 세력으로 성장하다가 상경하여 벼슬한 집안이다. 따라서 고성에서의 세는 중앙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았지만, 재지사족으로서의 위상은 지속되었다. 고성 이씨는 창녕 조씨(昌寧曹氏), 진주 강씨(晉州姜氏) 등과 같이 15세기 이전부터 재경사족으로 성장하였다가, 15세기 이후 일부가 다시 영남지방으로 낙향한 토성 사족이었다.

고려 문과 합격자 : 이준비(李尊庇, 1233-1287), 이암(李堦=李君佺, 1297-1364), 이강(李岡, 1333-1380), 이원(李原, 1368-1429), 이운로(李云老, 貴生子), 이진(李璿)

3) 박씨(朴氏)

조선 세조 때 박식(朴植)이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우고 철성군에 봉해졌다. 고성에 거주한 그의 후손 박경(朴炯, 1697-?)은 1740년 무과에 급제하였고, 박경의 손자 박정검(朴廷儉, 1765-?)은 문과에 급제하였다. 박경의 아버지는 학생으로 기록된 박명재(朴明粹)이고 아들은 박래길(朴來吉)인데, 문과에 급제한 박정검을 제외하면 고성 박씨에 대한 기록은 찾기 힘들다.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우고 순절한 박애상(朴愛祥)은, 고성백(固城伯) 박서(朴犀, 고려시기)의 후예라고 한다.

4) 김씨(金氏)

고성 김씨는 김수로왕(金首露王)과 함께 구지봉(龜旨峰)에서 탄생한 여섯 동자 중 제일 막내인 김말로왕(金末露王)을 시조로 하고 있다. 신라시대에 이 집안에서 고성군(固城君)·철성군(鐵城君) 등의 봉호를 받은 인물들이 나타나며, 고려말·조선초까지 다수가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성 김씨는 조선조에 다수의 과거·취재 등의 합격자를 배출하였지만, 고성에 거주했던 인물은 찾기 힘들다.

5) 남씨(南氏)

고성 남씨 가문의 인물로는 세종조에 직제학을 지낸 남수문(南秀文)과 성종 때 급제한 남세빙(南世聘)·남세주(南世周) 형제가 있다. 남수문의 아들 남유기(南有箕)가 홍주(洪州)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고성 남씨는 이 무렵 이미 토성으로서의 세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 문과 합격자 : 남금(南琴)

6) 기타 조선 초기의 내성(來姓)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고성으로 유입된 성씨로 등(登)·주(珠)·오(吳)씨를 수록하였다. 여기에는 등씨와 주씨는 중국에서 왔다고 하였고 오씨는 해주(海州)에서 왔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동시에 “등씨·주씨(朱氏)·최씨는 해주에서 왔고 오씨는 중국에서 왔다.” 는 또 다른 기록을 주석으로 부기하였다.

제 2절 조선 중기 이후의 성씨

조선 초기의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후, 영조 때(1765경) 편찬된 『여지도서』에는 고성의 성씨로 최(崔)·이(李)·노(盧)·곽(郭)·성(成)·정(鄭)·허(許)·문(文)·조(曹)·손(孫)·제(諸)·배(裴)·남(南)·김(金)·서(徐)·박(朴)·강(姜)·하(河) 등의 성씨가 본관을 기록하지 않은 채 대거 추가되었다.

이후 1930년경 편찬된 『철성지』에는 전주 최씨, 김해 허씨, 함안 이씨, 광주 노씨, 벽진 이씨, 현풍 곽씨, 양천 허씨, 창녕 성씨, 진양 정씨, 남평 문씨, 창녕 조씨, 성산 이씨, 칠원 제씨, 의령 남씨, 달성 배씨, 함중 어씨, 김해 김씨, 달성 서씨, 밀양 박씨, 진양 강씨, 진양 하씨, 광주 안씨, 창원 구씨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1937년경 편찬된 『교남지』에는 전주·삭녕 최씨, 성산·벽진·인천·재령·안악·여주 이씨, 김해·양천 허씨, 칠원 제씨, 광주·풍천 노씨, 함중 어씨, 달성 서씨, 진주 정씨, 대구 배씨, 밀양 박씨, 의령 남씨, 장수·창원 황씨, 창녕 조씨, 창녕 성씨, 진주 강씨, 광주·순흥 안씨, 진주 하씨, 밀양 손씨, 남평 문씨, 보성 선씨, 광주·김해 김씨, 창원 구씨, 현풍 곽씨, 칠원 윤씨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다수의 성씨가 조선 중기 이후 일제 시기까지 고성에 거주하였으나, 현재까지 고성에서 세를 떨치고 있는 성씨는 전주 최씨, 함안 이씨, 김해 허씨 등이다. 이들은 임진왜란 때의 창의 활동과 통혼 관계를 통해 고성의 주도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다음에서 주요 성씨들이 고성에서 한 활동을 개괄하겠다.

1) 전주 최씨

전주 최씨는 조선 중기 이후 고성의 대표적인 성씨가 되었다. 고성에 입향한 인물은 최담(崔潭)인데, 최담은 함안의 안인(安仁)에서 이거하였고, 광주 노씨 노숙우(盧淑佑)의 사위가 되었다. 이들의 학맥은 영남 사림파 세력과 연관되어 있었다. 입향조 최담은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의 문하생이고, 최균(崔均, 1537-1616)의 종조부 최심(崔深)은 송당(松堂) 박영(朴英, 1471-1540)의 문하이다. 최심의 아들 최현(崔峴, 1563-1640)은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과 한강(寒岡) 정구(鄭逵)의 문하이다.

이들 전주 최씨는 임란 의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세운 공훈을 바탕으로 고성을 주도하는 사족으로 성장하였다. 임란 때 창의한 대표적인 인물은 최균(崔均)과 최강(崔綱)이고, 최흥호(崔興虎)·최진호(崔振虎)·최용호(崔勇虎)·최각호(崔角虎) 등 일족이 참여하였다. 당시 전주 최씨는 구만(九萬)에 다수 거주하였는데, 이들은 여러 사족들과 함께 구만 전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왜적을 물리쳤다. 최균 등은 진주와의 경계 지역이었던 담티고개에서도 왜적의 침입을 방어하였다. 이들은 활발한 의병활동을 통해 세웠던 공훈을 바탕으로, 전후 복구과정에서 고성의 사회경제를 주도하는 가문으로 부상하였다.

이들의 족세는 최균과 최강의 후손을 중심으로 번성하였다. 최균의 맏아들 최흥호(崔興虎)는 부친을 따라 창의하여 원종공신이 되었고, 최강과 함께 덕천서원 청금록에 수록되었다. 최균의 손자 최흡(崔洽)은 사직을 지냈고, 최균의 아들 최진호의 손자 최유반(崔由磐)은 허목(許穆)과 종유하였다. 최강의 아들 최명호는 예빈시 주부를 지냈고, 손자 최락(崔洛)은 찰방을 지냈다. 이들은 대대로 향교의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고성의 전주 최씨는 최균·최강의 자손을 중심으로 유력 사족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나갔다.

1633년 도산서원(道山書院)을 세워 최균·최강을 제향하였다.

2) 함안 이씨

함안 이씨는 고려 후기부터 사족 가문으로 성장해 온 집안으로, 특히 고성에서 족세가 번성하였다. 사헌부대사헌을 지낸 이인형(李仁亨, 1436-1497)이 갑자사화(甲子士禍) 이후 고성으로 입향하였다. 이들은 김종직(金宗直)과 사우 관계를 맺거나 유력 사족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고성 사회를 주도하는 가문으로 등장하였다.

이인형의 아우 이의형(李義亨)은 고성의 북쪽 오방산(梧芳山) 아래의 신리(新里)에 세거하였는데, 형을 따라 김종직에게 배웠고, 김굉필·정여창·김일손 등과 교류하였다. 성종 때에는 이인형 4형제가 모두 문과에 급제했다. 이의형의 아들 이후(李翹, 1471-1534)는 무오사화에 연루되었으며, 이후 고성의 북쪽 위곡산(葦谷山) 기슭에 전경당(展敬堂)을 세워 머물렀다.

이인형의 증손자 이현(李顯)은 구만(九萬)의 와룡동(臥龍洞)으로 이거하였고, 유희춘(柳希春, 1513-1577)에서 수학하였다. 조임도(趙任道)·심광세(沈光世)·이염(李琰) 등과 교류하였고, 임란 이후 향교를 중수하는 등 복구에 힘을 기울였다.

이후의 증손자 이달(李達)은 임란 때 3백여 명을 모아 의병활동을 하였다. 이달의 처부는

박진영(朴震英)이고, 외종숙은 최균·최강인데, 모두 임란 때 창의하였다. 특히 이달은 최강과 함께 많은 전공을 올렸다. 전후에 선무공신에 책록되었고 여러 벼슬을 지냈다. 이의형의 증손 이응성(李應星)도 임란 때 창의하여 공을 세웠다.

고성의 함안 이씨는 15-6세기에 사회로 인해 낙향하였으나, 김종직 등 사족들과의 학연과 임란 창의 활동 등으로 고성의 유력한 재지사족 중 하나가 되었다.

3) 김해 허씨

고성에 김해 허씨가 정착한 것은, 고려말 허기(許麒)가 고성에 유배되면서 부터이다. 조선이 건국된 뒤에도 그의 자손들 다수가 고성에 머물러 살게 되었다. 허기의 아들 허유신(許惟新)은 조선 초기에 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벼슬을 지냈다. 그의 손자 허원필(許元弼)은 무과에 급제하였고, 여진족을 토벌한 공으로 원종공신에 책록되었으며, 저명한 문인 어득강(魚得江)과 교유하였다. 허원필의 아들 허형(許珩)은 종성판관을 지냈고, 그 아들 허천수(許千壽)는 퇴계의 제자로 다수의 자손들이 고성에 거주하였다. 허원필의 아들 허순(許珣)은 고성에서 삼가의 가회로 이거하였다. 허원필의 아우 허원보(許元輔)는 생원에 합격한 뒤에 고성에서 의령의 가례로 이거하였다.

고성에 거주한 김해 허씨 중 주요 인물은 다음과 같다.

허이한(許以翰), 허윤한(許允翰), 허정한(許廷翰), 허영(許英), 허분(許芬), 허세임(許世任), 허묵(許默), 허완(許浣), 허겸(許謙), 허심(許潯), 허행(許荇), 허재(許栽), 허간(許侃), 허동필(許東必), 허용규(許溶圭), 허훤(許暄), 허후(許垆), 허동로(許東櫓), 허경오(許慶伍), 허순(許詢), 허후(許垆), 허동로(許東櫓), 허경룡(許慶龍), 허경세(許慶世), 허정수(許正諄), 허선(許擘), 허동성(許東成), 허경문(許慶文), 허경필(許慶駢), 허우(許祐)

4) 진양 정씨

고성에 거주하는 진양 정씨는 크게 두 계열로 판단되는데, 정준민(鄭俊民) 계열과 정주한(鄭周翰, 1604-1659) 계열이다. 이상규(李祥奎, 1846-1922)가 지은 「진양정씨파보서(晉陽鄭氏派譜序)」에 따르면, 정준민이 진주에서 고성으로 이주하였는데, 그 증손대에 남포(藍圃) 정확(鄭廓)은 두 아우 정규(鄭奎)·정섬(鄭澗)과 함께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합천·의령 등지에서 큰 공을 세웠다. 정확의 아들 정개건(鄭蓋建)은 황석산성에서 순절한 대소헌(大笑軒) 조종도(趙宗道)의 사위가 되었고, 정확이 1630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준 재산을 기록한 문서가 남아 있어 당시 이 집안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이 집안 후손들이 1930년 편찬된 『철성지』에도 다수 수록되었다.

또한 1999년 간행된 『진양정씨 고성보(晉陽鄭氏固城譜)』에 의하면 정주한 계열 진양 정씨의 내력은 다음과 같다. 행은(杏隱) 정진엽(鄭震燁, 1637-1699)은 정주한의 아들인데, 진주 남쪽 성동(星洞)에서부터 대둔면 혼돈산(混沌山) 아래 행정촌(杏亭村)으로 이주하였다. 이때 정진엽의 아우 금재(琴齋) 정진욱(鄭震煜, 1640-?)도 함께 이주하여 고조산(顧祖山) 아래에 살았고, 그 아우 정진환(鄭震煥, 1642-1706)·정진도(鄭震燾)의 자손들도 고성으로 이주하여 1940년 무렵에는 고성 거주 진양 정씨가 100여 호가 되었다. 이에 따르면 정주한의 자손 중 일부가 현재 고성 거주 진양 정씨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정주한은 병자년(1636) 이후 관직을 버리고 향리에 은거하였다고 하며, 묘소는 사천(泗川) 정동(正東)에 있다. 이 집안 후손들도 다수가 『철성지』에 이름이 올랐다.

5) 칠원 제씨

조선 성종조의 인물인 제철손(諸哲孫)의 묘가 대가면에 있다. 임란 당시 고성에 거주하던 제말(諸沫)은 제홍록(諸弘祿)과 함께 창의하여 웅천, 김해, 의령 등지에서 왜군을 격퇴하였으나, 성주성을 지키다가 순절하였다. 제홍록은 정유재란 때 진주성에서 순절하였다. 고성에 거주하던 이 집안의 주요 인물은 다음과 같다.

제철손(諸哲孫), 제락(諸洛), 제말(諸沫), 제홍록(諸弘祿), 제명항(諸命璜), 제상억(諸尙億), 제경근(諸慶近), 제여필(諸汝弼), 제동진(諸東鎭), 제동찬(諸東纘), 제명철(諸命喆), 제한석(諸漢錫), 제한모(諸漢謨), 제한승(諸漢承)

6) 창원 구씨

구응성(具應星)은 임진왜란 때 창의하였고, 그의 아들 구동(具棟)은 약관의 나이로 부친을 따라 활약하였다. 이때에 구응성의 종형제 구응신(具應辰)·구응삼(具應參)도 무관으로서 참전하였다. 특히 구응성의 5대손 구상덕(具尙德, 1706-1761)은 37년간의 일기인 『승충명록(勝聰明錄)』 남겼는데, 이 일기는 당시의 18세기 농경제·사회사 등을 심층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固城郡誌

2015년 12월 20일 인쇄

2015년 12월 31일 발행

- 편찬자 : 고성군지 편찬위원회
- 발행인 : 고성군수 최평호
- 편집인 : 고성문화원장 도충홍
- 연락처 : 고성문화원 055) 672-3895
 고성군 문화체육과 055) 670-2202
- 인쇄처 : 합동인쇄
 경남 진주시 남강로633번길 8
 055) 745-5390